

시즌 첫 '코리안 더비'... 희찬 웃고 흥민 울고

황, 전반 7분 만에 선제골
손, PK 실축... 공격포인트 0
울버햄프턴 vs 토트넘 2-2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울버햄프턴)이 '페널티킥 실축'의 아쉬움을 맛본 손흥민(토트넘)과의 이번 시즌 첫 '코리안 더비'에서 리그 2호 골을 터트렸다.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은 3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4-2025 EPL 19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터트렸다.

울버햄프턴은 황희찬의 득점 이후 2골을 내주며 끌려가다 후반 42분 예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이 천금의 동점골을 뽑아내며 2-2로 비기고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이어갔다.

반면 토트넘은 다잡은 승리를 놓치면서 최근 2연패를 포함해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의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울버햄프턴과 토트넘의 맞대결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황희찬과 손흥민이 나란히 선발로 출전하면서 이번 시즌 첫 EPL 무대 '코리안 더비'가 치러졌다.

선제골은 울버햄프턴의 몫이었고, 주인공은 황희찬이었다. 3-4-2-1 전술로 나선 울버햄프턴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한 황희찬은 전반 7분 라얀 아이트누리가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밀어준 패스를 페널티아크 정면에서 오른쪽 슈팅으로 연결해 토트넘 골대 오른쪽 골 그물을 흔들었다. 황희찬의 '원샷원킬' 순간이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30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4-2025 EPL 19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7분 만에 선제골을 터트렸다. 골세리머니를 펼치는 황희찬과 득점 장면(작은 사진). AP=연합뉴스

있었다. 직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18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마수걸이 득점에 성공했던 황희찬은 19라운드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며 리그 2호 골을 쌓았다. 하지만 토트넘의 반격도 매서웠다. 토트넘은 전반 12분 페드로 포로의 오른쪽 코너킥을 로드리고 벤탕쿠르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번쩍 뛰어오르며 헤더로 동점골을 쏘아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7

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다가 18라운드에 징계를 끝내고 그라운드에 복귀한 벤탕쿠르는 2경기 만에 리그 2호 골을 맞췄다. 토트넘은 전반 42분 브레넌 존슨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으로 돌파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울버햄프턴의 안드레에게 반칙을 당해 넘어지면서 페널티킥을 따냈다. '캡틴' 손흥민이 전반 43분 페널티킥 킥러 나서 오른쪽 슈팅을 때린 게 볼의 방향을 읽은 울버햄프턴 골키퍼 조세 사의 슈퍼세이브에 막히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날렸다. 하지만 울버햄프턴을 계속 몰아친 토트넘은 전반 추가시간 페널티지역 오른쪽 구석으로 파고든 데얀 콜루세브스키의 컷백을 받은 존슨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오른쪽 슈팅으로 득점포를 가동하며 경기를 뒤집었다.

전반을 2-1로 마친 토트넘은 후반전 키오프 4분 만에 왼쪽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가 오른쪽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교체되는 악재를 맞았다. 토트넘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19분 왼쪽 날개로 선발로 출전한 손흥민을 빼고 티모 베르너를 교체로 투입했고, 손흥민은 64분 동안 1차례 슈팅만 기록하며 공격포인트 없이 벤치로 돌아왔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난 지 14분 뒤인 후반 33분에 황희찬도 카를루스 포르투스와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떠나 '코리안 더비'도 마무리됐다. 토트넘의 승리 기운이 짙어지던 후반 42분 울버햄프턴의 극적인 동점골이 터졌다. 아이트누리가 투입한 볼을 라르센이 잡아 골지역 왼쪽에서 강력한 오른쪽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스코어를 2-2로 만들었고,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이번엔 탬파베이·밀워키... FA 김하성 새 등지는 어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내야수 김하성(사진)의 행선지로 탬파베이 레이스와 밀워키 브루어스가 거론됐다.

메이저리그 인터넬 홈페이지(MLB닷컴)는 30일 각 구단에 어울리는 FA 선수 1명씩을 추천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김하성

이 탬파베이와 밀워키로 갈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4시즌까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활약한 김하성은 8월 어깨를 다쳐 10월 수술을 받았고 2025년 45살 정도 복귀가 예상된다.

MLB닷컴은 김하성의 탬파베이행에 대해서는 "어깨가 잘 회복된다면 1년 계약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본적으로 탬파베이는 보유한 선수들의 기량 증가에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에 FA 영입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기존 유격수 테일러 윌스의 수비가 좋고, 카슨 윌리엄스라는 유망주도 있기 때

문에 탬파베이가 김하성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MLB닷컴은 김하성과 밀워키의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1년 정도를 예상했다. 유격수 윌리 아다메스가 이달 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로 떠난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2025년 주목할 스포츠 행사들

- 6월 FIFA 클럽 월드컵
- 9월 세계육상선수권
- 골프 라이더컵 등 주목

2025년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과 같은 메이저 스포츠 대회가 열리지 않는다.

2021년에는 도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이 개최됐고, 2023년 항저우아시안게임, 올해는 파리올림픽이 열린 것과 비교하면 스포츠계에는 다소 한가한 시즌이 바로 2025년 셈이다.

그러나 새해에도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이목을 잡아줄 주요 대회들이 지구를 곳곳에서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AFP통신은 30일 새해 주목할 5대 스포츠 행사를 소개했다.

먼저 6월14일부터 한 달간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이 2025년 주요 스포츠 행사로 주목됐다.

FIFA는 그동안 6개 대륙의 클럽대항전 챔피언과 개최국 리그 우승팀을 대상으로 클럽 월드컵을 열었는데 올해부터 참가 팀을 7개에서 32개로 늘리고, 개최 주기도 4년으로 바꿨다.

확대 개편 후 첫 대회인 2025년 클럽 월드컵에는 우리나라의 울산 HD가 출전한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인터 밀란(이탈리아),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 바이에른 뮌헨(독일), 파리 생제르맹(프랑스) 등 유럽 강호들과 리오넬 메시가 뛰는 인터 마이애미(미국) 등이 우승에 도전한다.

9월 13일 일본 도쿄에서 개막하는 세계육상선수권도 2025년 주요 스포츠 행사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남자 높이뛰기에 나갈 예정인 우상혁(용인시청)의 입상 여부가 국내 팬들의 관심사다.

한국 선수는 나갈 수 없지만 9월 미국에서 열리는 라이더컵은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유럽의 남자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은 격년제로 열리며 스코티 셰플러(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 세계 톱 랭커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Back Bounce Sole

BB WEDGE

Designed by TOMARU

'솔의 홈에는 이유가 있다'

클럽 장인 카즈히로는 어프로치에서 뒷땅치는 골퍼를 위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솔에 6mm의 홈을 넣음으로써 빠짐이 바뀌었다.

Back Bounce Sole, 로얄컬렉션의 'BB웨지'라면

뒷땅에도 솔이 빠져 스핀 효과가 있는 어프로치를 칠 수 있다.

프로, 아마추어 불문하고 사용자 급증 중!

ROYAL COLLECTION

www.royalcollectiongolf.co.kr